전법 일기

아이들이 사찰합창단 활동 통해 부처님 법 스며들길 발원합니다

2017년 나는 부산 홍법사 동림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로 임명되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갔던 사찰의 어린이 법회에서 중창단 활동을 했던 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 당시 내가 합창단을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에, 지휘자로 임명되었을 때는 약간의 부담감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기우였던 듯 아이들과 함께하는 합창의 시간은 매우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

처음 합창단을 시작했을 때, 나는 합창의 음악적 요소에 치중하여 아이들에게 합창을 가르치고자 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지휘하며 생각의 변화가 이뤄졌다. 어린 시절 중창단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의 삶 속에 불교가 스며들고 익숙해지며 사찰에서의 즐거운 경험을 쌓아갔듯이,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도 단순한 합창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는 '아이들에게 불교합창단 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사찰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갖도록 하겠다'는 발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발원은 합창단의 합창곡으로 자주 불렀던 찬불가의 좋은 가사에서 큰 힘을 얻었다. 나는 합창곡 선정 시 가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찬불가의 좋은 가사는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하고 사찰을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할 만한 힘을 내포하고 있었다. 다행히 찬불가의 가사는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만한 단어들로 적혀있기도 했다. 물론 그럼에도 일부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있었기에 나 자신이 공부해야 했다.

덕분에 이 과정은 나 자신에게도 불교를 공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했다. 특히 찬불가에는 육도윤회, 바라밀, 옴마니반메훔 등과 같은 어려운 불교 용어들이 자주 가사로 나왔는데, 그 의미를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책과는 거리가 멀던 내가 책을 펼치고 인터넷 검색을 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 용어들을 합창 안무로 구성하기 위해 몇날며칠을 고민했다. 그렇게 안무를 완성하여 아이들과 함께 찬불가를 즐겁게 노래하다 보면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어린이 법회를 다니면서 중창단 활동을 했던 경험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동림소년소녀합창단 아이들에게도 매주 사찰에서의 합창 시간이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

비록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사찰에서 합창을 가르치는 것 뿐이지만, 아이들이 이를 통해 사찰을 익숙하게 여기고, 부처님에 대해 궁금해하며, 부처님의 품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이끌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 전법의 여정이 나와 아이들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려 한다.



이지윤
홍법사 동림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⑧ 법정 스님의 오도송

번뇌 걷어내면 그 자리가 '정토'

어찌 서쪽에만 극락이랴

옳거나 그르거니 내 몰라라
산이건 물이건 그대로 두라
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이랴
흰 구름 걷히면 청산인 것을

법정 스님(1932~2010)은 따로 오도송이나 열반송을 남기지 않았다. 월주 스님도 "내가 살아온 일생의 삶이 오도송이고 열반송"이라고 하였다. 법정 스님은 산문으로 필명을 얻었지만 어쩌다가 몰록 남긴 선시는 깨달음의 경지가 깊고 진하여 감동을 주었다.

이 시는 속가의 외조카이며, 조카상좌인 현장 스님에게 생전에 붓으로 써서 준 자작 애송시이니, 스님의 오도송으로 봐도 좋겠다. 법정 스님의 모습과 성격처럼 깔끔하고 간결하다. 군더더기가 없고 속기가 없는 청아한 품격을 느끼게 하는 우리의 전통 가락인 3·3·5조의 선취시(禪趣詩)이다.

이 시는 시시비비(是是非非)의 분별심을 떠나고, 번뇌망상의 먹구름만 걷히면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인 청산(靑山)임을 밝힌 깨달음의 노래이다. 산과 물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자연보호와 생명 사랑의 마음이 불교의 연기사상으로 잘 표현되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내 생각만 옳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아만심(我相)을 다스리는 공부이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갈등과 고통의 근원은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일이다.

결국 "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이랴 흰 구름 걷히면 청산인 것을"은 생불조사의 사자후이다. 어찌 깨달은 대장부에게 서쪽에만 극락이 있겠는가. 처처가 부처 없는 곳이 없고 일마다 불사가 아닌 것이 없다. 임제 선사는 "언

깨달은 대장부에게 서쪽에만 극락 있겠나
긍정적으로 생각한 자리, 향기로운 꽃 핀다

제 어디서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는 정토가 된다"고 했다.

법정 스님은 '살 때와 죽을 때'란 글에서 "살 때는 삶에 철저해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 꽃은 필 때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질 때도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했다. 스님은 투철하게 공부했고, 엄격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절제했다.

스님은 영가 대사의 말씀대로 몸에는 항상 누더기옷을 걸친 가난한 수행자였으나 도는 가난하지 않고 마음속에는 무가보(無價寶)의 보배구슬을 지니고 수행했다. 청빈(淸貧) 무소유는 스님의 힘이요, 화두였다. 버리고 또 버려서 무소유가 되었고, 비우고 또 비워서 텅 빈 마음인 본래 마음자리의 모습이 되었다. 국민들은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통해서 위로받았다.

재화가 신이 돼버린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서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소유적 삶을 몸소 실천하여 실험으로 증명해 보이신 거룩한 삶이었다.

스님께서는 "등산을 할 때 너무 많이 물건을 챙기면 도리어 그것이 짐이 되듯이 꼭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라. 너무 많이 소유하려니까 물질의 노예가 된다"고 했다.

필자가 법정 스님께서 길상사를 떠나시던 날 애도의 마음을 담아 '비구 법정 가시는 날'을 지어 읊조렸다.

"〈전략〉 스님은 흔한 만장 하나 없이 그냥 훌훌 털고 평상복 차림으로 가셨습니다. 아직은 꽃샘추위가 매서운데 기어이 먼 길 떠나셨습니다. 지는 꽃보다도 아름다운 스님 가시는 모습 깨끗하다 거룩하다 합장하여 불러 봅니다. 그 동안 스님이 있어서 세상은 향기가 있었습니다. 무소유 맑고 향기로운 세상 스님이 저희에게 남기고 간 숙제입니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비구니회 탄소중립 실천에 거는 기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3대 집행부가 8월 7일 회관 내 메타공연장에서 올 한 해 진행한 상반기 사업을 보고 하고 하반기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임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부서별 활동 현황 공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로 진행됐다.

이날 각 부서가 발표한 다양한 업무 추진과제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불교 홍포 및 계승뿐 아니라 대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전국비구니회에서는 종이 없는 회의가 진행된다.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전자문서 공유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비구니회 측은 이를 통해 연간 2~30만 장의 종이뿐 아니라 복사기 토너와 기타 제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30만 장 종이 절약은 30년 된 소나무 2~30그루를 살릴 수 있는 양이다.

종이로 제작 배송됐던 회지 '비구니'도 e-book 제작으로 변경된다. 비구니회 측은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비구니회원들의 관심도 불러일으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월 19일에는 탄소비움 자비채움을 주제로 환경 대축제 '그린붓다데이'가 열린다. 콘서트와 캠페인으로 구성된 축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기업에서나 사회단체에서나 환경보호와 사회공헌, 윤리경영을 의미하는 ESG를 기반으로 한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눈앞의 현안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당면 과제를 넘어서 불교적 혜안을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종교의 역할일 것이다. 비구니회의 탄소중립 실천이 사회적 책임에 어떤 모델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외면한 무릎 통증이 탈골·인대파열
수술비보다 걱정 앞선 '가족 생계'

네팔노동자 수딥 씨, 공장일하다 무릎 다쳐
병원비만 1500만원…치료 중단하고 퇴원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